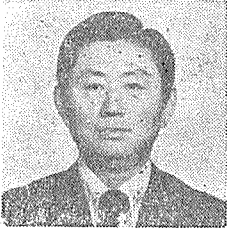


流産 시킨 뒤의 주의 할 일

유 산



宋 尚 煥

임신 7개월 이전에 임신을 중절시키는 즉 임신물질인 태아와 태반을 자궁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인공유산이라 한다.

인공유산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가족계획의 방법으로도 널리 유행되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인공유산은 합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유행속에 인공유산이 대단히 성행되어 가임부의 40% 이상이 인공유산을 받은 경향이 있는 실정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인공유산을 시킨 뒤의 주의해야할 일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하며 빨리 회복하는 일이다.

인공유산의 합병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것은 출혈과 염증이다.

인공유산 수술은 직접보지 못하고 기계의 촉감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도 불가피한 합병증이 있을수 있

다. 가장 많이 보는 출혈합병증의 원인은 완전히 유산이 되지 못하여 태반의 일부가 남아서 생기는 불완전유산이며 자궁에 상처가 생기거나 수축이 나빠서도 생긴다.

수술후 1주이상 출혈이 계속되거나 출혈량이 점점 줄지 않거나 보통 때의 월경보다 많을 때는 이상이 있는 것이다.

출혈이 많으면 빈혈이 생기고 전신 건강이 나빠져서 염증이 생기기도 쉽고 다른 병이 생기므로 올바르게 치료해야 한다.

출혈은 자가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

심한 출혈이 있을 때는 수혈을 받아야하지만 그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다.

수술후에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 자궁속의 상처가 빨리 낫게하고 빈혈이 있으면 철분과 비타민이 들은 약제를 복용하면 쉽게 회복이 된다.

유산시킨후의 몸가짐은 산후에 몸

조리 하듯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별이상이 없어도 유산시킴 이후 2주까지는 목욕탕속에 들어가 목욕하거나 부부생활, 또는 질내의 조각이나 세척은 염증을 이르킬수 있으므로 삼가해야한다. 임신 3개월 이후에 유산을 시켰을 때와 출혈의 합병증이 있었던 사람은 한달까지는 주의해야한다.

유산후 염증은 출혈이 있는 후나 몸이 쇠약할 때 잘 나타난다. 대개는 3-4일 이후에 신열이 있고 하복통, 요통이 있으며, 출혈이 있고 불편을 느낀다.

이 염증은 임신 3개월이후에 유산을 시켰을 때 더욱 위험이 많다.

유산후의 염증은 산욕열과 같이 위험한 것이므로 함부로 자가치료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현재 여러 가지 항생제가 있지만 병을 일으킨 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항생제가 선택되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 그분량이 결정되며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결정된다.

유산후의 염증치료는 함부로 매약 치료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게 내성을 만들어 주고 더욱 위험해진다.

인공유산의 대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 뒤가 깨끗하지만 간혹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 정확하고 자기에게 알맞는 피임법으로 유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 유산이 필요하게 되면 될수있는데로 초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 흔히 임신초기에 약으로 유산시킴되거나 자연 유산을 기대하면서 차일피일

지나다가 시기를 놓치고 임신 3개월 후에 유산을 시키는 일이 있는데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다. 임신 3개월 이후에는 직접 수술로 유산을 시키지 못하고 자궁속에 어떤 물질을 넣어 유산이 되게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유산후에 다시 소파수술을 받아야하고 염증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임신 3개월 이후에 유산을 하였을 때는 출혈이나 염증의 예방과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도록 주의 해야한다.

유산후 염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만성골반 염증으로 평생을 고생하게 되며 또는 다음에 필요하여도 다시 임신을 못하는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필자=함양의대 산부인과 교수·의박)

海外만화

